

갯바위에 만불대원탑 건립

선본사, 진신사리 봉안한 만불대원탑 점안 및 제막식 봉행

국내 제일의 역사예래 도량인 팔공산 갯바위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만불대원탑이 세워졌다.

경산 선본사주지 항적)는 7월 15일 팔공산 갯바위에서 만불대원탑 점안 및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1부 점안의식(법주 동주 스님)과 제2부 제막식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교육원장 대흥 법장 스님, 호법부장 정만 스님,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법하 스님,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경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병국 경산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15일 팔공산 갯바위에서 봉행된 선본사 만불대원탑 점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1500여 대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갯바위의 갖은 으뜸을 의미한다. 부처님 가르침 중 으뜸은 '지혜'라며 "오늘 만불대원탑을 조성한 무량공덕으로 역사예래의 12대원을 이어받은 갯바위 선본사 사부대중 모두 역사예래와 같은 지혜를 구족해 육도중생을 성불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연을 속히 성취하길 발원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선본사 주지 항적 스님은 인사말에서 "만불대원탑을 조성한 것은 더욱 많은 중생들이 갯바위 역사예래의 가피력으로 소원을 성취해 일체중생이 소멸되고 국운이 융창돼 남북이 평화통일 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도록 발원하기 위함"이라며 "만불대원탑이 조성돼 깨달음의 세계는 한층 더 깊고 넓게 이 세상을

비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만불대원탑 조성을 계기로 찬란한 불교문화의 고귀함도 널리 현창하면서 다가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경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발원을 이어 받아 지관 스님의 증명 아래 국가 경제부흥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무병장수, 학업성취, 재액소멸, 사업무장원, 부모왕생원 5개 발원과 동참 불자들의 소원을 부처님 복장에 넣어 조성했다.

조성식 기자, 손법천 대구지사장

이번에 조성된 만불대원탑은

회당축제 29~31일 울릉도서 개최

울릉도 최대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제9회 회당문화축제가 거행된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7월 29~31일 창종주 회당 순규상(悔堂 孫圭祥, 1902~1963)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2009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테마-기획공연마당,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 및 한국문화체험마당 등과 부대행사로 진행

된다. 29일 울릉도 저동항 가설무대에서 열리는 '생명사랑 콘서트'와 30일 도동항에서 열리는 '독도아리랑 콘서트'에서는 가수 장사의, 소프라노 김양희 씨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 독도가 담긴 동해지도를 나눠주며 독도가 담긴 동해지도도 나눠주며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 및 한국문화체험마당 등과 부대행사로 진행

김성우 기자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4' 발간

육천 대성사(주지 혜철,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전국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 후원자 모음집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4> 4권(문주사를 7월 15일 발간했다.

이번 모음집은 '전국교도소 후

연대회' 등 당선작과 우편 등을 통해 답지한 편지 등을 엄선한 것이다. 모음집 가격은 1만원으로 책 판매 수익금은 재소자 복지 개선과 사회 정착 지원 등으로 환원된다. (043) 732-5560 노덕현 기자

불심 담아 수용자들 음성공양

청주교도소 14일 찬불가 경연대회 열려

청주교도소 김명철 소장은 7월 14일 '제3회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석문 사(주지 혜정) 7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열린 찬불가 경연대회. 수용자들에게



7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열린 찬불가 경연대회.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심사위원장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은 "수용자들이 찬불가를 부르며 참회하고, 삶의 희망을 다져 더욱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에 앞서 독경대회 개최 등 교정활동에 앞장서온 혜정 스님이 김명철 청주교도소소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혜철 총청지사장

교계 최초 록그룹 'BUD 밴드' 탄생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15일 연습실 개원법회

한국불교 최초의 록그룹사운드 'BUD(Buddhist University of Dae-guan-eumsa)밴드'가 탄생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BUD밴드'를 지난 1월 15일 결성하고 7월 15일 회주 우학 스님, 주지 밀허 스님, 문화부장 선주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습실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회주 우학 스님 법문, 임명장 수여, 기념연주회 등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BUD밴드는 '우리절교가'와 '대관음사 원력가'를 연주했고 앵콜 공연으로 '제2의 고향'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불교대학 옆 건물 지하 70여평 공간에 마련된 밴드공연단 연습실은 음향장비를 갖춘 방음 공연장과 악기 파트별 레슨실, 댄스실 및 연극연습실 등을 갖추고 음악과 무용, 연극을 포함하는 종합예술공연단으로 활약하게 됐다.



7월 15일 연습실 개원법회에서 기념공연을 펼치는 BUD밴드 단원들.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성된 BUD밴드는 성인밴드 일렉 기타, 베이스, 드럼, 색소폰, 보컬, 키보드 등 7인조로 운영된다. 단장 강정길, 남부단장 김정배, 여부단장 박은미, 밴드부 팀장 김원기, 무용부 팀장 권미아씨 등 대관음사 신도들이 단원으로 참여했다. 지난 5월 불교대학 신입생 MT에서 신입생 환영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기도 한 BUD밴드는 사찰 행사 공연은 물론 도심 길거리 포교공연과 각 지역사회들의 포교지

원 공연 및 종합예술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21세기형 포교와 청소년포교를 위해서는 록그룹사운드가 필수적임을 느끼고 전문 음악인들을 포교해 BUD밴드를 창단하게 됐다"며 "연중 지속적인 음악공양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공연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053)474-8228 김성우 기자

불교합창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KBS홀에서 개최하는 '2009 불교합창페스티벌' 참가자를 공모한다. 불교음악예술원(원장 이달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작곡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불교합창경연대회 및 원로불교음악인을 위한 특별 음악회(연합합창제)로 꾸며진다.

경연대회에 참가할 단체(전문 성악인은 제외)는 8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선 진출 10여개 합창단을 선발하는 예선은 10월 10일 오후 2시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다. 예선에서는 찬불가는 자유곡 2곡을 선곡할 수 있다. (02)722-2606 김성우 기자

이주노동자 선수련회

예산 수덕사 주지

예산 수덕사(주지 응산)는 6월 28~30일 이주노동자 등을 초청 선수련회를 개최했다. 네팔 이주노동자 10여 명과 필리핀,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족 20여 명이 수덕사 심연당에 머물며 자기긍정 명상과 108배, 단청과 만다라 그리기 등을 체험했다.

3년 전 베트남에서 시집과 이제 17개월 된 딸을 둔 도모티 닝(27)씨는 "진정 부모님과 함께 부처님께 기도하러 다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덕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찾아온 참가자들이 산사에 들어 자연을 벗 삼아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었으면 한다. 또 한편으로 삶의 새로운 의미와 용기와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혜철 총청지사장

태고종 충북교구 총무원서 연수교육

태고종 충북교구 총무원(원장 원혜)은 7월 13일 태고종 총무원을 방문해 태고종 종단사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봉원사 참배 등을 봉행했다. 이번 교육일정에는 태고종 연합신도회(회장 김동훈) 산하 신도회화상 및 각 사찰별 신도회 임원 80명과 담당 사찰 주지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태고종도들의 에방을 받은 총무원장 윤산 스님은 "충북교구 신

도회의 단합된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애중심을 갖고 앞서가는 총무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혜 스님은 "종단이 어려울 시기에 신도회 임원들이 전통종단의 일원임을 함께 느끼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부하고 함께 배우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혜철 총청지사장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부터 ~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개 강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 출가수행, 사미,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 개 강 : 2009년 8월 6일 목요일